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모든 것이 가하다”는 구호는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고린도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의 풍조와 복음에 대한 오해가 맞물려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슬로건이 성도들의 삶을 주도하고 있던 고린도교회에 바울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1.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고린도교회는 그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만연하였던 “모든 것이 가하다”는 구호에는 바른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에 따라 선택하는 모든 행동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유로운 결정이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얽매이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자유를 따라 선택했다고 생각한 어떤 행동이 결국 자신을 지배하고 옴아매버리는 것을 우리는 많은 중독의 사례에서 발견합니다. 자유로운 결정이 항상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것 또한 당시에 퍼져 있던 말이었습니다. 이 은유적인 표현은 몸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채워야하며 그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시대의 풍조를 뒤집어 놓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2.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교회의 또 다른 큰 문제 중 하나는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과 관련한 분쟁이었습니다. 먹어도 괜찮다는 쪽과, 절대 먹을 수 없다는 쪽이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시비의 결론보다 더 큰 원리에 주목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가하다”는 구호를 다시 꺼내들어 바른 방향을 잡습니다(고전 10:23-24).

우리에게 말과 행동의 자유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자기 주장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성도가 추구할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한 단면입니다(고전 10:31).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생명, 새 삶을 얻은 자들을 다시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자기중심의 삶,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 이웃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길로 향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세상은 ‘네 몸이 즐거운대로 살라’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